

2007년, 양계업 84%가 어두울 것으로 전망

HPAI 예방을 위해 차단방역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꼽아

1. 2007년 양계업 전망은?

설문에 참여한 양계인의 사육규모는 평균적으로 채란업 65,400수, 육계업 58,000수, 종계업 50,500수로 조사되었다.

이중 84.3%(59명)가 2007년 양계산업이 어두울 것으로 바라보면서 지난해에 66.7%로 조사된 결과보다 금년 양계상황을 더욱 어둡게 내다보았다. 11.4%(8명)는 변화 없을 것이다, 2.9%(2명)는 밝을 것, 1.4%(1명)는 모르겠다고 전망하면서 이 같은 결과는 쿼터제 해지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과잉생산, 유통구조개선, 자조금 정착화 문제 등 양계업계의 순항을 위한 걸림돌 등이 올해 양계업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육규모계획으로 59.0%(36명)는 그대로 유지

지난 2월 22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본회 2007년도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의원을 비롯해 이날 참석한 전국의 각 지회·지부에서 활동 중인 회원을 대상으로 양계인들의 설문 답변을 받아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설문에 참여한 농가는 총 71명으로 채란인 36.6%(26명), 육계인 35.2%(25명), 종계인 16.9%(12명), 기타 11.2%(8명)가 설문에 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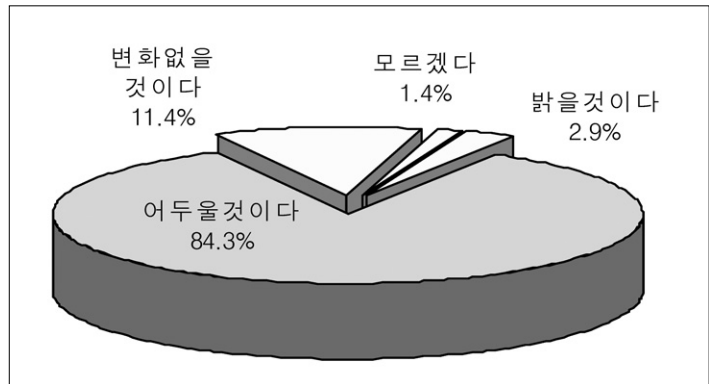
- 편집자주 -

표1. 양계인들이 바라보는 2007년 양계업 전망

구분	어두울 것이다	밝을 것이다	변화없을 것이다	모르겠다
채란인	88.5%	0%	7.7%	3.8%
육계인	88.0%	0%	12.0%	0%
종계인	83.3%	0%	16.7%	0%
기타	57.1%	28.6%	14.3%	0%
총계	84.3%	2.9%	11.4%	1.4%

할 것으로, 27.9%(17명)은 증축할 것, 13.1%(8명)는 감축할 것으로 조사 되었다.

업종별로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채란인들은 88.5%, 육계인들은 88.0%, 종계인들은 83.3%순으로 나타났고, 반면 밝을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0%로 조사되었다.



〈도표1〉 양계인들이 바라보는 2007 양계업 전망

2. 양계산업 당면 현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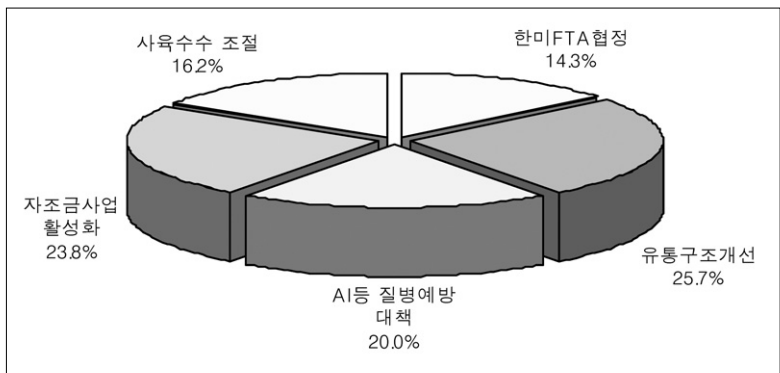
2007년 당면현안에 대해 유통구조 개선(25.7%)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자조금사업 활성화 23.8%, AI 등 질병예방 대책 20.0%, 사육수수조절 16.2%, 한미 FTA 협정 14.3%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채란업계는 작년과 같이 사육수수조절 및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우선순위로 꼽아 2005년도 쿼터제 철회 이후 사육수수 및 환우계군 증가로 인한 양계업계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육계업계는 진전을 보이지 않는 자조금사업 활성화

문제를 우선순위로 답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화 되어 양계업계의 활기를 불어 넣는 바람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종계업계는 AI 등 질병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지난 HPAI 발생이나 가금티푸스 등 질병발병에 대해 대책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2. 양계인들이 바라보는 양계산업 당면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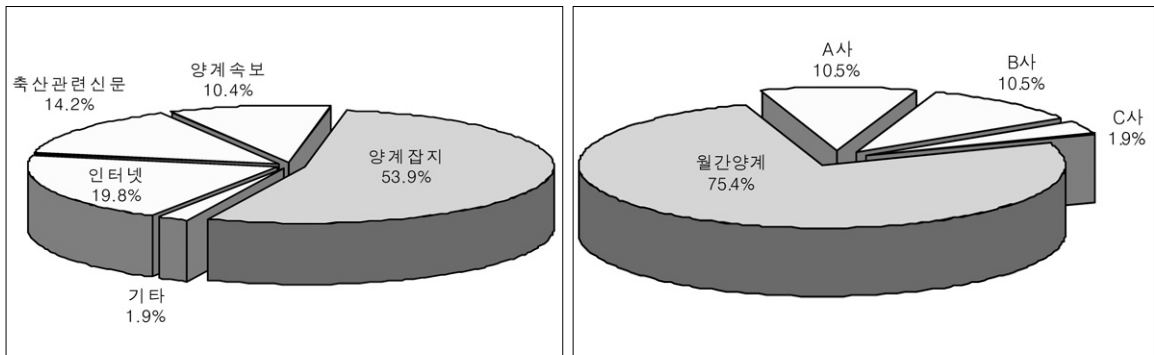
구분	유통구조 개선	자조금사업 활성화	AI 등 질병예방 대책	사육수수조절	한미FTA협정
채란인	30.8%	25.6%	5.1%	33.3%	5.1%
육계인	24.4%	29.3%	19.5%	4.9%	22.0%
종계인	16.7%	0%	50.0%	8.3%	25.0%
기타	23.1%	23.1%	38.5%	7.7%	7.7%
총계	25.7%	23.8%	20.0%	16.2%	14.3%



〈도표2〉 양계인들이 바라보는 양계산업 당면 현안

3. 귀하는 양계정보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얻습니까?

양계인들은 필드에서 필요로 한 양계정보를 어디에서 접하는지 알아보았다. 가장 많이 찾은 것은 양계잡



〈도표3〉 양계정보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얻습니까?

지로 53.9%(57명), 인터넷 19.8%(21명), 축산관련신문 14.2%(15명), 양계속보 10.4%(11명), 기타 1.9%(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양계잡지를 통해 양계농가 절반 이상이 정보를 얻고 있었고, 이중 월간양계 75.4%(43명), A사 10.5%(6명), B사(6명), C사 1.9%(2명) 조사되면서 월간양계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4. 양계협회 홈페이지 방문시 가장 유용한 정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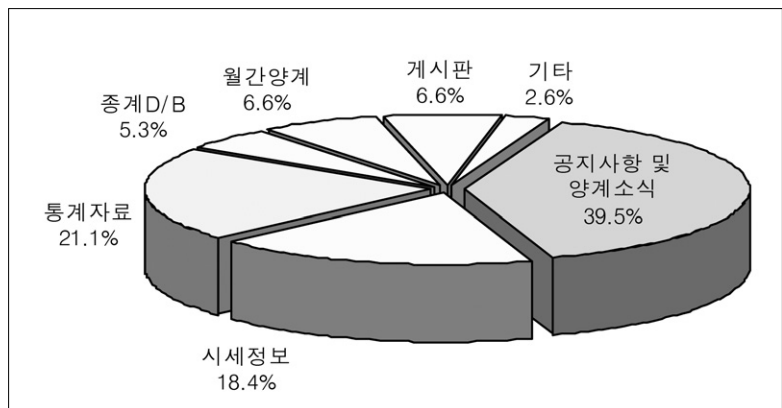
설문응답자 중 87.1%(61명)가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답변을 주었고, 이중 13.0%(9명)가 매일 방문을, 24.6%(17명)가 일주일에 2~3번 방문, 49.3%(34명)가 가끔씩 방문을 한다고 대답하였다.

지난해 7월 회원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양계소식, 게시판, 사고팔기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뀌면서 농가

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창간이후 38년째 발간하고 있는 월간양계를 원문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보다 편리하게 개편하였다.

이에 대해 양계농가에서는 공지사항 및 양계소식을 39.5%(30명), 통계자료 21.1%(16명), 시세정보 18.4%(14명), 월간양계 6.6%(5명), 게시판 6.6%(6명), 종계DB 5.3%(4명), 기타 2.6%(2명) 순으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루 2천명 가까이 본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서 이중 40%는 양계소식이나 AI 관련 일일동향정보를 유



〈도표4〉 양계협회 홈페이지 방문시 가장 많이 찾는 정보

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협회 활동은?

지난해 말 철새 이동철인 10월부터 본회에서는 AI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 지회·지부에 상황보고는 물론 정부의 지침 및 홈페이지에 AI관련 일일동향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면서 전국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70.1%(47명) 만족스럽다 및 보통이라고 답을 주었고, 29.9%(20명)은 협회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답하였다.

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최우선 당면과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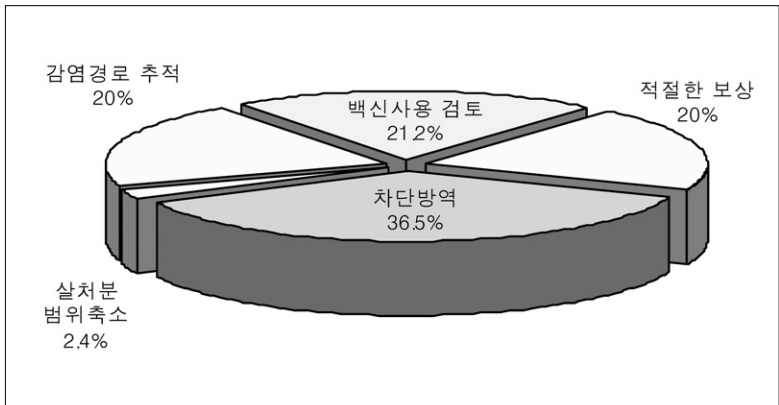
양계인들이 생각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최우선 당면과제로 차단방역이 36.5%(31명)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7차 발생지인 천안지역까지 모두 칭하이(Qinghai) 바이러스로 동일 계통인 것이 확인되었고, 발병원인이 겨울철 철새로 인한 감염이지 않을까 의구심이 좁혀지면서 농가에서는 10명 중 3명 이상이 차단방역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답하였다. 그 외 백신사용 검토 21.2%(18명), 감염경로 추적 20.0%(17명), 적절한 보상 20%(17명), 살처분 범위 축소 2.4%(2명) 순으로 답하였다.

AI로 인한 피해로 인해 살처분 및 수매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본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의 개정에 대해 살처분과 예방접종 병용 사용 검토 및 농가보상에 대한 규정 확립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리 | 장성영 기자)

표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최우선 당면과제

구분	차단방역	백신사용 검토	감염경로추적	적절한 보상	살처분 범위축소
채란인	38.7%	32.3%	19.4%	9.7%	0%
육계인	24.2%	18.2%	18.2%	36.4%	3.0%
중계인	33.3%	16.7%	25.0%	16.7%	8.3%
총계	36.5%	21.2%	20.0%	20.0%	2.4%



〈도표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당면과제